

靑 “탁헌민 사의 안 밝혀...경질 논의無”

여성 폄하 저서와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탁헌민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도 경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탁 행정관이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차원에서도 탁 행정관 경질을 논의하거나 결정할 바가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순방에도 수행하는 등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탁 행정관은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지 않고 먼저 독일에 도착하고 귀국도 따로 한 것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 요구”

더민주 일부 의원들도 반발...곧 거취 결정

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만간 탁 행정관의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 참석 직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탁 행정관의 해임을 청와대에 요구했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 혐오 현상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권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이

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탁 행정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으며 탁 행정관이 교수로 근무했던 성공회대 학생들로부터 그의 부적절한 인행이 추가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탁 행정관은 문제가 확산된 지난 5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글을 올리며 “2007년 제가 썼던 남자바람실명서”의 글로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던 모든 분

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며 “10년 전 당시 저의 부적절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저의 가치관은 달라졌지만 당시의 그릇된 사고와 언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과거의 생각을 책으로 남기고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가졌음에도 신중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공연기획 전문가인 탁 행정관은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의 출마선언 영상을 총괄 제작하는 등 대선 캠프에서 깊숙이 활동하며 청와대에 들어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원내 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문준용 동시특검’ 발의 “증거조작 나온 본질은 취업특혜”

“한국당·바른정당이 특검 추천”...문대통령도 수사대상 포함여지

국민의당은 ‘조작 파문’과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동시특검 수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무라도 빨리 특검법이 통과해서 이유미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당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증거조작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본질인 취업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대안에서 이기고 보자는 탐욕 때문에 증거조작이 있었지만 냉정히 보면 (조작 파문은) 취업특혜 의혹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당초 예고한대로 특검 추천권을 ‘사건과 관련된 자가 검찰이 아닌 정당’이라고 규정. 당 차원에서 특검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는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규정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김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이유미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속전속결로 수사하고 있다. 추미애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무라도 빨리 특검법이 통과해서 이유미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당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증거조작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 본질인 취업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대안에서 이기고 보자는 탐욕 때문에 증거조작이 있었지만 냉정히 보면 (조작 파문은) 취업특혜 의혹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장제원 “한국당 복당,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

“유신 미화하는 류석춘, 극우 아니냐”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한 장제원 의원은 13일 “한국당으로 복당한 것은 제 정치 인생 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

에 류석춘 혁신위원장 임명을 두고 “당이 극우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홍준표 대표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홍 대표는 장 의원의 SNS에 “극우의 개념을 찾아보고 비판하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장 의원은 “(한국당이) 보수대통합이나 보수개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라며 “저를 무소속으로 뽑아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류석춘 위원장에 대해 “류 위원장은 유신에 대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얘기했다. 이런 것을 미화하는 것이 극우”라며 “또 북한을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



력통일도 하지는 아니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본인과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내에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많다고 본다”며 “류 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고, 통화했고, 교감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정우택 “어깨에 힘들어간 靑, 말장난 해도 되는지 의문”

“이효성 방통위원장 위장전입 한번 아닌 실제 세 번”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가 요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에 대한) 말장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이효성 방통통신위원장을 선정하면서 밝힌 위장전입은 한번이지만 실제론 세 번으로 밝혀졌고 이것은 말장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G20대내외에서 국내 들어오니 국회와 정치상황이 그대로 멈춰있다고 했다”며 “아이가 보기엔 국회나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비편견 없는 분은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차관급 인사를 했는데 모 인사의 경우에는 야당 대통령 후보 당시 현직 대통령 후보에 대해 거의 극악에 가까운 저

비바난을 했다”며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임명됐는데 민주당 선대위활동과 극단적 정치색 활동을 했다는 것은 표기조차 안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임 식약처장(차관급)에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류 처장은 지난해 탄핵 국면 당시 박근혜는 사이로 패스라는 글을, 대선 당시에는 홍준표 대선후보에게 ‘패륜아’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7명 차관급에 5명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인 인사라고 한다”며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연평해전 무공훈장까지 받았던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연평해전 추모일에 군 골프장 찾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2012~2014년까지 추모행사 기념일에 골프장 찾았다는 것인데 해군함포총장까지 지낸 분이 그 날 골프장을 찾았다면 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윤호 기자

니경원 “높은 정부 지지율,文摘은 사람들만 대답”

니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대답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여론조사기관 분들을 만났는데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60% 이상이 문 대통령을 찍었다고 하더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정권초기에 취하기 쉬운 여론조사의 함정”이

라며 “응답자의 60%가 문 대통령을 뽑았다고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아무래도 국민 마음보다 부풀어져 있다고 봐야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이후 한 토론회에서 철학없는 국회의원 명단에 자신을 포함한 것과 관련 “그게 살생부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 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 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 곁에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